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7 | Summer
vol. 40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7년 여름호

인사말

- 3 나보다 동문을 더 생각하는 봉사정신
홍종오(21회) 동문회장
- 5 새로운 약학대학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
황완균(26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7 중앙대학교 약대교수 프로필
- 10 제21대 회장단

동문회소식

- 12 화보
- 15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17 제60차 정기총회 및 60주년 기념식
- 인터뷰
- 20 聿立中央 飛翔藥大
황공용(11회) 편집고문

동기회소식

- 26 졸업 60주년의 추억
홍흥만(1회) 동기회장

동아리소식

- 29 약물학실 요산회를 소개드립니다
기록 : 손의동(22회)

문학산책

- 32 두 도시 이야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특별기고

- 39 고 김성진 추모사업회,
병태생리학실에 역상현미경 기증
주훈정(39회)
- 41 동문회동정

42 만평

43 장학기금

44 편집후기

나보다 동문을 더 생각하는 봉사정신

-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약대 총동문회 제21대 회장에 취임한 21회 홍종오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수많은 동문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대학이 약학대학의 선두에 섰듯이 그간 우리 동문회도 최고의 동문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개국약사, 공직약사, 병원약사, 제약회사, 연구소, 법조계 및 학계, 개인 사업을 위시한 사회의 많은 분야에 진출하여 그 중추가 되어 국가와 사회는 물론 중앙대 약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약대 동문회에 대한 사회의 명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모아 단결하고 '나보다 동문을 더 생각하는 봉사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약 8천여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묵묵히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장단, 그리고 희생봉사로서 역대회장을 맡아 주신 본회 고문님들의 노고 등, 지금까지 뛰어나고 멋진 동문회를 이룩해 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동문회는 세대교체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동문회는 우리가 만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원의 힘과 뜻이 모여야 진정으로 강한 동문회입니다.

둘째, 동문회 임원에 선뜻 나서서 학교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의 물심양면의 도움이 바로 동문회의 힘입니다.



홍 종 오(21회)
동문회장

셋째, 하부조직 강화입니다. 서로 단합하고 위해주는 동문의 힘이야말로 동문 개개인의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부 분회 모임을 더욱 공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동문회 장학금,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한 학교와 동문 간 교류를 통한 일체감을 형성하겠습니다.

둘째, 여러 분야의 우수한 동문님들이 동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문회의 폭을 넓히고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통한 동문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세대교체 시기를 맞이하여 후배 기수 동문들의 동문회 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저는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기존의 사업을 잘 이어 받아 발전시켜 나가며, 골프대회를 일요일로 바꾸어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동문의 힘을 모으고 확실한 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젊은 후배 기수에게 동문회의 위상과 열정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더욱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전통을 만들어 주실 여러 동문님들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약학대학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

긴 가뭄에 이은 강한 국지성 호우, 그리고 폭염이 유난히도 많은 2017년입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대 학장 26회 황완균입니다.

먼저 얼마 전 21대 약학대학 동문회장님으로 취임하신 홍종오동문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약학대학 동문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학대학은 동문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동문 장학금이 8천만원에 가까운 수여가 예상됨으로서 재학생들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자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문이신 임성기 한미약품회장님께서 2016년에만 20억원의 발전기금을, 또 최종목 전동문회장님께서 5억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면서 지난 5월 17일 최종목 동문님은 모교로부터 명예약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약학대학 동문님들의 모교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약학대학 1회 동문 선배님들이 졸업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1회 동문 선배님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황 완 균(26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최근 모교는 약학대학을 비롯하여 경영경제관 등의 신축 및 과거 약학대학인 파이퍼홀 등 다수 노후건물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하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소프트인프라 확충에서도 유능한 교수님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하여 2017년 현재 약학대학 교수가 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약학대학은 성공적인 6년제의 정착과 교수님들이 여

러 중대형 연구사업을 수주하는 등 한국 최고의 약학대학, 세계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이제 중앙대학교는 내년 2018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약학대학은 100주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약학대학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학대학 100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학은 2009년 이후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8년여 동안 동결됨으로서 대학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의 경우 6학년 1년 전체를 실무실습으로 진행함으로써 재정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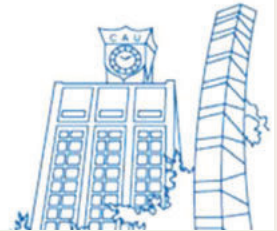
최근 세계 우수 대학들이 졸업동문과의 교류를 통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재능 또는 기금 기부형태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각 대학의 일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여의 형태도 선순환 또는 릴레이 식 형태로 전환되어 성적우수보다는 가계곤란 장학금의 형태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문장학 학생들이 졸업 후 동문들이로서 꼭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동문 여러분! 100주년을 앞두고 세계약학의 중심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동문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학교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끝으로 동문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앙대학교 약대교수 프로필



황완균 약학대학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식물·의약품자원학, 약사관련법규, 생약학실습
연구실 약품자원식물학 연구실



황광우 학부장 및 제약학전공 주임교수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일리노이대학(석·박사)

담당과목 임상생체면역학, 면역학실습
연구실 생체방어조절 연구실



오경택 약학전공 주임교수 겸 대학원 약학과 학과장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석사)
· 네브라스카 의과대학(박사)

담당과목 물리약학, 약물동력학
연구실 나노생명약학 연구실



이도익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석사)
· 동경대학교 약학부(박사)

담당과목 면역학, 면역학실습, 생물바이오횰약품
연구실 면역학 연구실



최영욱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약제학실습, 약제학, 제제학
연구실 약물전달체 연구실



이민원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생약학, 생약학실습
연구실 생약학/천연물의약품 연구실



임채욱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석사)
· University of Alberta(박사)

담당과목 의약화학실습, 의약품합성학
연구실 신약디자인 연구실



김대경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 일본 University of Tokyo 약학부(박사)

담당과목 건강관리약학, 독성예방약학 및 실습, 임상독성학
연구실 독성예방약학 연구실



김하형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동경대학교 약학부(석·박사)

담당과목 물리약학, 무기제약/물리약학실습
연구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라이코믹스 연구실



김홍진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Fairleigh Dickinson대학(석사)
· Rutgers대학(박사)

담당과목 약품미생물학실습, 임상미생물학, 생물바이오횰약품
연구실 바이러스학 연구실



심 상 수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석사)
- 가톨릭대학교 의학과(박사)

담당과목 내분비학, 해부생리학, 병태생리학실습

연구실 생리기능 및 세포신호 연구실



손 의 동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부산대학교 약학과(석사)
- 중앙대학교 약학과(박사)

담당과목 임상약물학, 임상독성학, 약물학실습

연구실 신호전달 및 약리활성 연구실



천 영 진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한국과학기술원(석·박사)

담당과목 약품생화학, 의약생화학, 약품생화학실습

연구실 약품생화학 연구실



한 상 범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약품기기분석학, 약전및품질과학, 약품분석학실습

연구실 생의약질량분석 연구실



이 재 휘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
- 영국 Wales대 약대(박사)

담당과목 약제학실습, 약제학, 제제학, 약물전달시스템, 의약품제조관리학

연구실 의약품제형설계 연구실



최 형 균

-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석·박사)

담당과목 천연물약품생명공학, 약용식물세포배양공학, 생약학실습

연구실 천연물생명공학 및 대사체학 연구실



조 사 연

- 서울대학교(학·석사)
- 미국 Brandeis 대학교(박사)

담당과목 약학세포유전학, 중앙생물학

연구실 분자약학세포생물학 연구실



민 경 훈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의약화학, 임상의약화학, 의약화학실습

연구실 혁신신약개발 연구실



민 혜 영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석사)
- Stanford Univ.(석사)
- UCLA(박사)

담당과목 항생물질, 약품미생물학, 약품미생물학실습

연구실 RNA 생물약학 연구실



김 현 정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박사)

담당과목 약리학, 약물학, 약물학실습, 일반독성학

연구실 신경약리 및 줄기세포 연구실



설 대 우

- 고려대학교 유전공학과(학사)
-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세포병리학과(박사)

담당과목 의약유전공학, 의약분자생물학

연구실 분자치료 연구실



서 동 철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뉴욕주립대(경영학석사)
- 미네소타대학교(보건경제학박사)

담당과목 약물경제학, 약무경영학, 약무행정학

연구실 약업경영경제정책 연구실



배지현

·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미국 Wayne State Univ.(석사)
· 미국 Univ. of Michigan-Ann Arbor(박사)

담당과목 예방약학실습, 위생약학, 약물대사유전체학
연구실 분자예방약학 연구실



김은영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이화여자대학교(석·박사)
· 플로리다주립대(박사)

담당과목 약물치료학, 기초약무실습
연구실 임상약학, 약물치료학 및 근거중심약료 연구실



강원구

· 충남대학교 약학대학(학·석사)
· 독일-Martin Luther Univ. Halle-Wittenberg(박사)

담당과목 약물동력학,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연구실 약물/약력학모델링 연구실



오경수

· University of London(학사)
· University of Sussex(석·박사)

담당과목 고급유기화학, 의약품설계합성학
연구실 비대칭촉매연구실



서원희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유타대학교 약학대학(박사)

담당과목 의약생화학, 의약생화학실습, 의약유전공학
연구실 혈관세포생화학연구실



이지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세포병태생리학, 병태생리화학
연구실 병태생리학연구실



정경혜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석사)
· 영남대학교 약학대학(박사)

담당과목 약물치료학, 기초약무실습, 조제 및 복약지도



김훈영

· 이화여자대학교(학사)
· 이화여자대학교(석사)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박사)

담당과목 의약품합성반응론, 의약품성분자 제조법
연구실 유기약학/화학연구실



나동희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석·박사)

담당과목 의약품제조 관리학, 약전 및 품질과학
연구실 약물표적화연구실



이성훈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석사)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박사)

담당과목 임상독성학, 약물독성학
연구실 신경독성 및 신경발달장애연구실



정선영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석·박사)

담당과목 임상약학, 임상약물치료학, 기초약무실습
연구실 약물요법연구실



박희웅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박사)

담당과목 무기·방사성의약품, 약사관련법규, 건강한 삶

제21대 회장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1회	 홍종오	부회장	21회	김중효, 김진자, 노재하, 박전희, 백운경, 양주석 이상일, 이승호, 조형래, 최병철, 한성희, 한상윤
				22회	강희윤, 고석순, 유대식, 이준상, 최광훈
23회	김수중, 하종렬, 박종화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25회	김광호, 문태화, 이광인, 김춘규, 최두주				
26회	김정수A, 박정래, 반수호, 유영한, 최민규, 한갑현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이원일				
28회	구영삼,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해룡, 장원규				
29회	이종민, 이상수, 강대용, 김형수, 유형준				
30회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수석부회장	21회	 김수배	32회	정선중, 진창연	
	32회	 조양연	35회	은형주, 이경선, 이성주, 임중식, 예현주	
사무총장	30회	 김광식			
사무부총장	30회	 윤미숙			
	32회	 조양연			

제14대 여동문회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7회	 곽나윤	총무	29회	김인혜
				30회	백영주

제21대 상임위원단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직위	성명	기수
기금운영관리	홍종오	21회	윤리	류승률	21회	학술	최병철	21회
· 특별위원회			편집	김기명	18회	병원	이광섭	24회
· 권익옹호			섭외	한갑현	26회	홍보 및 정보통신	강의석	35회
사무총장	김광식	30회	약경영	김중효	21회	체육	임중식	35회
사무부총장	윤미숙	30회	공직약사	김광호	25회			
사무부총장	조양연	32회	ROTC	김승재	24회			

제21대 이사

1회	김기홍, 김순일, 김옥동, 박학전, 손동헌, 이광표, 장 레 홍흥만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채윤,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승학, 임영규, 정훈교, 조동준
2회	김종욱, 김홍식, 박문호,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지선훈 한성순, 황재수	6회	김경희, 김동열, 박정배, 신정숙, 안병한,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이현영, 임성기, 임완호, 임철부, 장정희, 장지용 전희태, 홍병석
3회	강승조, 김석자, 박기하,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기상, 이병균, 최종목	7회	강승안, 김영덕,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재일, 정조원, 최춘자
4회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흥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안국영, 이창우, 정재원, 천홍기, 한민희, 허인희		

8회	김돈기, 김신자, 김연희, 김홍자, 김희영, 박번일, 배영애 임상묵, 장영자, 조의환, 한석원
9회	권혁구, 김영빈, 김익섭, 김홍래, 문영동, 박석학, 박장우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10회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안영태, 유정사, 이대윤 이영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주정덕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신명승, 이명자, 정덕호, 허정범, 황공용, 황문상
12회	강옥희, 김 구, 남기탁, 노덕재, 노석준, 박영찬, 서태욱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구,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최병호
13회	구연홍, 김종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임유재, 조성복, 최창엽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박기진, 신광근, 양인승 엄태항, 윤대봉, 정진모, 조길도, 조영연
15회	고동석, 김영만, 김용익, 박석동, 박원봉,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영식, 조찬휘, 최영덕
16회	강명채, 고숙자, 권영복, 김광식,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우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솔,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17회	김성지, 김인형, 김인희, 김재천, 김태성, 박재식, 선우영환 송진석, 신상직, 신창영, 양계순, 양희익, 유승화, 윤수근 이동우, 이완철, 이희정, 장재인, 전상훈, 전선영, 전우준 정갑진, 주완표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김애경, 김종기, 박계환, 박광숙 이원영,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최한규, 한창일
19회	권창호, 김경오, 남상규, 박효식, 옥태석, 윤건섭, 이경욱 이창욱
20회	구장림, 권오규, 김대승, 김현태, 김홍진, 류화승, 문주기 박기배, 박영근, 배성진, 송창수, 유영내,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정찬현, 조진환, 최석중 허문영, 한광식
21회	고영근, 김대일, 김수배, 김중효, 김진자, 노재하, 박전희 백운경, 송진용, 안병현, 양주석, 이상일, 이상준, 이승호 이창환, 조형래, 최병철, 한상윤, 한성희, 한찬수, 홍종오
22회	강희윤, 고부환, 고석순,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규홍, 이명욱, 이준상, 이진우, 이현희, 전일수, 전철호 차달성,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23회	강한구, 곽창림, 김수중, 김영식, 김영출, 김영표, 박상진 박종화, 박희용, 서동철,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정세희 제갈희, 조근태, 조병훈, 조중호, 하충렬, 한치완, 홍순욱
24회	김승재, 김태두, 양성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임무호 장규욱, 정종근, 조종래, 최영욱,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25회	고성권, 김광호, 김준규, 김희섭, 문태화, 백광현, 성낙순 이광인, 이내홍, 이민원, 이완희, 이재희, 이종인, 전경숙 조순현, 최두주

26회	권송상, 김안식, 김영후, 김정수A, 김학철, 박병섭, 박정래 반수호, 선우일원, 손영상, 심상수, 오옥희, 유영한, 윤광중 이승헌, 이종량, 정교현, 진희익, 최교석, 최민규, 하재일 한갑현, 황완균
27회	곽나윤, 김덕진, 김정호, 민병희, 박수길, 박영달, 변옥희 서평석, 오순용, 오홍설, 유재수, 윤영한, 이원일, 이창오 최기선, 최종대, 최종식, 한봉길, 현기원
28회	강철순, 고재호, 구영삼, 김영희, 김유곤, 김희식, 신영무 양덕숙, 양창국, 유희동, 이병천, 이상수, 이숙희,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한용문
29회	강대용, 김은진, 김인범, 김인혜, 김형수, 박웅삼, 손병로 유형준, 이상수, 이종민, 이종수, 하숙량, 한일룡, 현상배
30회	고석일, 김광식, 김연하, 김정일, 김해승, 김현학, 김혜수 백영주, 신일균, 윤미숙, 이장무, 이진우, 정의차, 천세영 최병원, 최병태, 현익상, 홍성광
31회	김성민, 변동성, 오대근, 오세정, 이미자, 이성표
32회	김신규, 안광열, 이경우, 정선중, 정영복, 조양연, 진창연
33회	김은곤, 이정수, 조준상
34회	김보원, 전형수, 한일권
35회	강의석, 곽정근, 김미정, 도건호, 서유정, 송지숙, 양윤정 예현주, 오창현, 은형주, 이경선, 이기훈, 이상훈, 이성주 임중식, 최규룡, 황광우
36회	김영민, 박기호, 우경아
37회	김학림, 김학선, 황성관
38회	이재훈, 최은주, 최은영
39회	이정근, 주훈정
40회	이태상, 정병찬
41회	김소연, 윤지희, 최명수
42회	정동만
43회	이경은
44회	이선영
45회	김권식
46회	민지홍, 원현식
47회	남우현
48회	차자현
49회	김원호, 김성근, 박진석
50회	남윤성
51회	김홍진, 문효진
52회	장진영
53회	강형규
54회	임재춘
55회	김민성
56회	신상윤, 이경민
59회	주혜진
60회	김태수, 김희주
61회	이기철



- 4월 6일_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4월 12일_ 감사수감
- 4월 12일_ 2017년 1학기 장학금수여식
- 5월 13일_ 부산지부 정기총회



01

02

03

04



5월 19일_ 최종목(3회) 고문 명예박사 수여식

5월 19일_ 고문단회의

5월 26일_ 2017년 멘토링 발대식

6월 14일_ 20대, 21대 동문회 인수인계



01 02

03

04

01

02

03

6월 24일_ 고문단회의

7월 14일_ 편집위원회의

7월 22일_ 초도이사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국민 건강 책임지는 약사 될 것"

약학전공 58명, 제약학전공 53명 총 111명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월 15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1회로 약학전공 58명, 제약학전공 53명 등 총 111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황완균 학장은 식사를 통해 “이번 졸업생들은 오늘 이후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여러분은 이제 떠나겠지만 중앙학교 약학대학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도록 또 다른 인생의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방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동문회 김헌태 회장은 축사에서 “약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간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배 멘토를 두게 된 축복받은 졸업생이다. 선배 멘토와 함께 부디 맛있는 약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졸업생은 “이번에 졸업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를 향한 첫 발을 떼는 포부를 밝혔다.

2016학년도 제61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유진 강한결 김민규 김범수 김소정 김소형 김순식
 김승민 김혜영 도종혜 박은혜 박현찬 백민우 변은진
 서동영 선하은 손혜은 신동준 신지민 심재훈 심지혜
 양대형 엄성준 오새롬 오지선 유승관 이경진 이경화
 이기철 이동훈 이민아 이서영 이소민 이수진 이슬기
 이은석 이은희 이정규 이창두 이학영 이현나 이현석
 장연주 장지나 정민준 정재아 정주호 정진희 조영훈
 최영국 최지영 최지은 최지혜 한상구 홍경은 홍정민
 홍혜림 황정호 [이상 : 약학 전공 58명]

제약학전공

강지인 강창욱 강혜영 강혜정 고지원 공서영 광지수
 구판서 권영아 권지원 금지훈 김길형 김동민 김명중
 김민지 김서현 김설아 김세영 김우석 김윤지 김윤혜
 김인규 김지언 김지언 김지은 김현정 김혜미 도지연
 두정화 류연상 문준성 박만호 박보정 박소영 박정은
 박준형 박지혜 박진솔 박창민 배상준 서홍승 손종훈
 심영빈 안영지 유대예 유민아 이윤영 이주성 정신희
 정영주 정찬은 하지원 홍록기 [이상 : 제약학 전공 53명]

수상자 명단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김지언
최우등(학부수석)	황정호
최우등	이민아, 김서현, 강혜정, 박보정, 백민우, 김명중
우등	도지연, 정재아, 도종혜
우수	김범수, 안영지, 홍경은, 이학영, 권지원, 유승관, 김윤혜, 유민아, 최영국, 이수진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김지언	공로상	이기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정호	16회 동기회	김범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민아	20회 동기회	안영지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서현	26회 동기회	홍경은
경기도약사회	강혜정	(주)한미약품	이학영
동작구약사회	박보정	(주)일동제약	권지원
본동문회	백민우	(주)삼진제약	유승관
여자동문회	김명중	(주)건일제약	김윤혜
안양분회	정재아	(주)하이텍팜	박현찬
천안분회	도지연	(주)온누리에이치엔씨	유민아
나사모	도종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0차 정기총회 및 60주년 기념식

21대 홍종오 회장 선출, 여동문회 꺾나운 회장 취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5월 27일 약학관(102관) 11층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제60차 정기총회와 동문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롭게 동문회를 이끌고 갈 수장으로 홍종오(21회) 전 대전지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 석상에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현태 회장과 이해룡 사무총장을 위시한 회장단을 중심으로 김기홍, 최종목, 임완호, 권혁구, 유정사, 서국진, 윤대봉, 장재인 고문, 한석원, 김창중, 손의동 자문위원, 박석동, 정명진, 이경옥 감사를 비롯하여 곱나운 여동문회 회장, 강옥희, 이경옥, 강희윤, 양덕숙 여동문회 고문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찬회 대한약사회장과 함께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최병원 인천사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학교측에서는 황완균 학장을 필두로 최영옥, 한상범, 오경수, 이지윤, 박희용 교수와 나동희, 이성훈, 정선영 신입교수도 참석했다. 재학 중인 정영섭 학생회장이 총회 진행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재학생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다.

자리를 빛내준 내외빈으로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과 총동창회 김태원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으며, 서울대약대동문회 최규팔 회장, 이형철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정태원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김은숙 부회장, 이진우 총무이사,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김은주 회장, 강현수 부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김은주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박정신 회장, 이명자 부회장, 한국여약사회 김성순 회장 등이 총회 석상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해주었다.



김현태(20회) 직전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졸업 60주년을 맞이하는 1회 졸업생 선배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 건강사회를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모교와 동문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힘을 모아준 최고의 선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김창중(11회)
명예교수



임종철(19회)
한미약품 자문위원

이상일(20회)
한국휴텍스제약(주) 대표

학장 공로패



민성철(34회) 생약반 동문회장



백운경(21회) 천안 부광약국

총동창회장 공로패



박동규(13회) 수암약국



손의동(22회) 중앙대 교수



이광섭(24회) 건국대병원 약제부장

동문회장 공로패

구영삼(28회) (주)에프엔리서치



김유곤(28회) 바른손약국

유중운(29회) 종로세명약국



김상익(30회) 살롬약국



이경우(32회) 구세약국



김소연(34회) 아름다운약국



배들이다. 동문회에서 조출하게나마 60주년 행사를 마련하기로 하고 준비했다"라고 오늘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또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장학기금을 4억 7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늘렸고, 재학생 멘토링사업을 2년째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된 회원명부도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물심양면으로 회무를 도와준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교 교수님들은 물론 선후배 동문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두루 전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회(15회) 회장은 축사에서 "편의점약 확대에 대해 복지부가 많은 준비를 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의 교육부실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소 받아들여지고 있다.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과 반품제도화 등도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완균(26회)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의 도움으로 모교가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유능한 교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하겠

다"면서 "2018년이면 우리 중앙대학교가 창학 10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00주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주년을 맞이해야 한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1회 선배님들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임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 우리 약대 60년을 되돌아보는 각종 사진을 중심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특별히 상영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잔잔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약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칼라무스'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노선배님들이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1회 선배님들께는 동문회에서 준비한 케이크 커팅과 함께 한분 한분 기념품을 증정해 드렸으며, 선배님들께서는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해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임원 선출에서는 홍종오 전 대전지부장을 선출했다. 홍종오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21회 동기들이 동문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동문회장을 맡기로 했다.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 동문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신임 감사로는 김성지(17회), 이경옥(19회), 김홍진(20회) 동문이 선출됐다. 곽나윤(27회) 여동문회장은 연임됐다.

聳立中央 飛翔藥大

웅립중앙
비상약대



황공용 (11회)
편집고문



대학 졸업 당시의 손동헌 박사(1957.3.20)

孫東憲 노선배의 바람은
당연히 모교의 발전,
비상하는 약대를 기대함

올해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회 졸업 선배님들이 졸업 60주년을 맞는다.

피난지 부산에서 시작된 약대의 역사는 파이퍼홀을 거쳐 약학관(R&D관)의 시대를 열며 7천5백여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한국의 으뜸 약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태인 약대를 1회로 졸업하신 후 유학을 마치고 모교 전임강사로 출발, 36년간 봉직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키워 내셨고, 퇴임 후에도 후배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이 되는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무엇보다 본인이 어렵게 공부하던 기억을 발판으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 될 때마다 발전기금이며 장학금 기부에 앞장 서 오신 분이 있다.

우리 약대의 위상이 전만 같지 못하다는 우려가 현실의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 그 어느 때보다 선인들의 해안을 빌려 어려움을 타개해 보자는 몸짓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호(靑湖) 손동헌 교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삶의 철학이며 자긍심이 포함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닌가 싶다.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소위 “북청물장수”로 대변되는 북청 출신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남쪽으로 넘어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래요. 나는 알다시피 이북 북청 출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 호만포리가 내 고향이지요. 교육열이 높은 북청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뒤에는 사과과수원과 밭이, 앞에는 논밭과 큰 호수가 있고 송림사이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산자수명한 풍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요.

어릴 때 꿈이 요즘말로 장군이나 판검사나 아닌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만큼 어찌 보면 평생 그 꿈을 이루며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만주사변으로 시작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중학생이 되었는데, 조국 광복의 기쁨은 잠시 공산집단의 학정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1949년 12월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어요. 여기 그때 졸업증서와 성적표가 있는데, 한 과목 4점을 빼고는 전 과목 모두가 다 5점인 A 학점의 성적이어서 우등생에 해당되는데도 사상과 출신 성분이 나빠서 평점은 보통으로 적히고 결국 우등상을 못 받았어요.

1950년 1월 수의사로 평양 소재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부임 후 6개월 만에 6.25사변이 터졌고, 9월 28일 서울수복에 이어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거듭하는 시점에서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평북 강계(江界)로 피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이동하던 중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각으로 탈출을 감행, 고향인 북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유엔군이 후퇴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아버님과 숙부님 두 분을 모시고 어머니가 목에 걸어주신 훈수용 명주천 한 벌과 북청농업전문학교 졸업장 하나만을 들고 함흥까지 피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 달라져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에 동원된 11척의 선박 중 “도바다마루(東羽田丸)”라는 일본국적의 화물선에 승선하여 거제도 장승포항에 발을 디

디게 된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몸소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진 추위와 절박한 배고픔, 많은 피난민들 사이에서 아버님과 헤어진 일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불안 등등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하려는 섭리요 기적이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북청 출신이라는 한마디 말에서 숨어있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오롯이 느껴지는 궤적을 살아 내셨습니까.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설 한권으로 다하지 못할 엄청난 개인사가 축약되어 있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약학대학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우여곡절 끝에 생사를 확인할 길 없었던 부친이 대구 친척 손동욱 변호사(후에 대법관이 됨) 집에 기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제도 옥포수용소를 나와 부친과 100일만에 극적으로 합류했지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겨 지금의 부산터널 바로 위에 두 사람이 겨우 잘 수 있는 레이션 박스와 신문지 등으로 판잣집을 꾸미고 미군부대 부두노동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의식주 해결을 위해 미 제623 야포부대에 채용되어 양구, 인제, 고량포로 함께 이동하였는데, 나중엔 그 야포부대까지 대포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다 친데 없이 살아남았지요.



북청농업전문학교 졸업증서와 국립가축위생연구소 증명서



박사학위 수여식(1970.2.25)

1952년 휴가를 얻어 부친이 계시는 부산에 갔을 때 시내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무얼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미군부대 노무자와 대학교 3학년! 당장 밥벌이도 어려운 부친께 “대학교에 보내 달라”는 생떼를 쓰다가 다시 일선으로 복귀했는데, 부친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런 마음 가눌 길이 없어요.

그러던 중 1953년 2월 말 경기도 고량포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로 “서울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음. 3월 3일 입학시험이 있으니 속히 귀가하라.”는 부친의 편지를 받고 바로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북한 학교의 졸업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대 당국자의 유권해석으로 입학원서조차 내지 못한 것이 실제 상황이었어요. 부랴부랴 송도해수욕장 근처에서 당시 2차 모집 중인 중앙대학교를 찾아갔으나 상황은 마찬가지, “북한 졸업장은 인정할 수 없으니 접수할 수 없다”는 교무과장의 말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북한대학의 사정을 잘 아는 월남 동포 교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접수가 이루어졌고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수의과대학이 없던 중앙대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전공과목 등이 많이 겹치는 약학대학의 신입생이 되었어요.

북청농업전문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도 당연히 수의과대학을 선택하려던 계획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학도로서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지요.



약대가 피란수도 부산에서 1953년 개교하여 당시 1회로 입학한 셈인데 그때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학창시절 생활은 그래도 좀 나아지셨는가요?



1953년 종합대학이 된 중앙대학은 4개 대학을 만들었는데 약학대학은 당시 정원이 60명으로 부산에 40명, 이리에 20명, 그리고 서울에 약간 명이 재학하고 있었어요. 부산 송도해수욕장 탈의실 자리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가마니 따위로 칸막이 시늬만 했던 터라 다른 과 강의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약대는 대접을 받아 특별히 “승리장”이라는 일본요리집 다다미방에서 수업을 듣곤 했지요. 그러다 9월 서울 환도와 함께 흑석동으로 이동, 당시 본교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약대 학생들은 총장공관 2층 자리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지요.

입학했을 때 동기생들보다 세네 살이 많았고 기골이 장대했던 나는 학생회장으로 추대 되었고, 이로부터 2학년, 3학년까지 학생회장을 내리 3년간 맡게 되었지요. 아마 약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 송도에서 강의 받을 때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손형 점심 먹으러 가시자”고 하여 한두 번은 얻어먹었지요. 그러나 한번쯤은 저도 점심을 사주어야 되겠는데 아침밥도 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에 돈이 있어야 사주지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동쪽으로 행하면 나는 서쪽으로 소변 보러가는 척 하면서 그들을 피



청호 손동헌 박사 근영

해버렸지요. 점심 후 다시 모이게 되어 만나면 “손형은 어 데서 혼자 무얼 그리 맛있는 걸 들고 오시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입학초기라 저의 고향하는 사정이야기를 말 할 수도 없었고, 배는 고프지만 부끄러워서 “먹었다, 굶었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만 웃음으로 넘겨 버렸지요. 그러니 매 학기마다 등록금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 할 곳도 없어, 내가 미군들의 사진을 구해 와서 친구가 확대해서 명주천에 초상화를 그려주면 2달러를 받아 1달러씩 나눠가졌는데, 때로는 그 1달러 대신 양담배로 받아 그걸 암시장에 내다팔아 몇 푼 더 버는 식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간혹 학교에 장학금이며 발전기금이며 기회될 때마다 기탁을 하는 계기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이라 느끼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 이랄까요? 지금도 주변에 나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편하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조건 하고 보는 것이지요.



요즘 후배들은 그때처럼 절박하게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장학금 덕분에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선배들의 몫이 되겠지요. 졸업 후 진로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교수의 길을 택하시게 되었습니까?



정말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1957년 졸업을 앞두고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제약회사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소위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내게 사치스런 고민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절치부심, 오히려 초등학교 시절 꿈꾸었던 과학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기로 했어요.

1959년 그래도 순탄하게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천우신조의 기회로 연결되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인 파이퍼씨의 10만 달러 기부로 1956년 약대 파이퍼홀을 지었는데, 그러고도 남은 자금을 이용해서 임영신 총장님께서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재학시절 내리 3년을 학생회장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상태였거든요.

그야말로 하늘이 도우시려고 그랬는지 당시 10년째 징병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사연인즉 이북에서부터 갖고 있던 치질로 인해 갑·을·병종도 아닌 무종을 받아 매년 재검을 실시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뻘히 알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별다른 치료나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징병검사 시 판정관에게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역으로 복무라도 하게 해 달라”고 읍소하여 마침내 병종으로 불합격 처리되어 병역이 면제된 상태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미국유학 생활을 마친 후 귀국하여 드디어 모교에서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어요. 장장 36년간을 정성분석이며 위생화학 등을 통해 후학들을 지도하고 봉사하면서 다수의 석·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 가장 보람이라면 보람이지요.

정년 후에도 명예교수로 추대되어 힘닿는 데까지 후학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며,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환경한림원 원로회원, Seoul Eco Club 회장, 북청군장학회 이사장직 등등을 역임하며 후배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남기려고 했던 삶이 오늘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순수 약학자의 길을 걷는 대신 환경 문제에 눈을 돌려 지금은 1세대 환경원로로서 대접



손동현박사의 논문을 보도한 일간신문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과 함께 특히 환경문제로 고초를 겪으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회를 좀 밝혀주시지요.

A 과거에는 약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환경분야도 많이 연구했어요. 약대 커리큘럼에 기본적으로 대기, 수질, 식품, 위생 등 환경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었으니까요.

그러다가 1973년 일본에 1년간 연구차 갔을 때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카드미움 중독이 원인인 이따이이따이 병, 요코하마 천식 등 이미 공해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현실을 목도하고는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한국에서는 관심조차 없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본 국립공중위생원에서 환경위생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계속해 나갔지요.

귀국해서 대기, 수질, 두발, 토양 중의 수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대기 중 발암물질, 중금속, 미세먼지 등에 관한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니 소위 선경지명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 사이 관련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보사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아주 정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 계속 되었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자면 1978년 11월3일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어요. 전남 담양의 고씨 농가 일가족이 수은중독에 걸려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의 논밭의 수은을 측정하니 전국 토양중의 평균치보다 17배나

높아 대한약학회에 그대로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야말로 전국 언론에 난리가 났지요. 당연히 관계당국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지만 본인이 일본 국제협력단(JAICA)의 원조로 무료로 들여온 고가의 최신식 수은측정기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적 양심을 지킬 수 있었지요. 당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동료 교수들 집으로 피신하던 절박한 심정을 떠올리게 하네요.

세월이 변하여 환경청도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공로로 1991년 6월5일 환경의 날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이런 경험들을 살려 환경원로들의 모임인 ‘일사회’ 회장을 맡아 후진들에게 경험을 전해주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더 무엇이 있겠어요?

아 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지금 우리 약대 정원이 120명인걸 아시지요? 1972년 약대 교학과장 재임시 학교당국과 함께 환경학과를 개설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방대한 서류작업을 마무리하여 문교부에 신청하였고 그 일이 성사되었지요.

30명 정원의 환경학도가 생기자 공대에서는 자기대학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본인이 대학 본부에 끝까지 주장하여 당시 90명이던 약대에 30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지요.

당시 문교부 설치 기준에 약대 내에는 약학과와 제약학과만을 두기로 되어 있어 명칭을 위생제약학과로 조정하여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약대 정원을

120명으로 확보하는데도 내가 기여를 했다면 한 것이지요.



정말 약학자로서 또한 환경학자로서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은 당연히 우리 중앙대 약대가 명실 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자원의 우수함은 물론이고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모교 교수진만도 34명이나 된다니 그야말로 상전벽해, 많은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계는 있지만 모든 것이 계량화되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요즘 현실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면대결 해야겠지요. 학교는 학교대로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선배들대로 뒤처지는 순간 회복할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말은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얇은 지갑이라도 더 활짝 열어 한 푼의 장학금이라도 두 푼의 발전기금이라도 흔쾌히 기탁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이 1회로서 졸업 6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이 후배들로 보서는 까마득한 61회가 졸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동문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졸업한지 60년이 되었으니 이번에 졸업하는 후배들이 61회가 되겠네요.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작은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 합니다.

동문회가 할 일은 자명하지요. 선배들의 경험과 고언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후배들의 각오와 노력을 선배들에게 인식시키는 상호 통로로서의 역할을 어느 때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선배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동문회가 보다 젊어져야 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연령적으로 젊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가 젊어지고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동문회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하게 동문회를 통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되면 단합은 따라올 것이고, 힘이 합쳐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노교수의 이런 저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2015년 9월 약대에 헌판 하나를 기증했지요. ‘聳立中央 飛翔藥大’(용립중앙 비상약대 - 우뚝 선 중앙대학교, 날아오르는 약학대학)라는 글귀를 초당 이무호 선생이 각자해 주셨는데,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중앙대와 앞으로 더욱 비상하게 될 약학대학을 기대한다는 뜻에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아우러지도록 표현한 것이지요.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또 기대해야 할 의미가 집대성된, 그야말로 내 마음이 제대로 응축된 그런 내용입니다. 약학관 2층에서 우리 후배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큼니다.

듣자하니 이번에 11회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의례적인 행사에 더해 참가자 모두가 일정액을 동문회에 기탁하기로 했으며, 이 움직임이 모든 동문들에게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바로 그거지요. 거창한 구호 앞세우고 몇몇 특정인에게 기대는 행사보다는 모두가 공감하는 참여형 실천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중심에 동문회가 우뚝 서 있어야겠지요!

두어 달 전 동료 노교수님들과 일본을 다녀오셨고, 며칠 전에도 새로 뚫린 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몇 분과 동해바다를 구경하고 오셨다는 미수(米壽)이신 교수님은 좀체 쉴 틈이라고 없는 분처럼 보였다. 여행가면 삼시세끼 아직 소주잔 마다할 일 없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교수님의 웃음이 후학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는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졸업 60주년의 추억

1회 동기회

우리 중앙대 약대 1회 동기들이 어느덧 교문을 나선지도 6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때의 기억과

40주년,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때의 기억이 크게 달라질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쌓인 세월이 60성상이라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쫓지 않아도 가는 게 시간이고 밀어내지 않아도 만나는 게 세월인데

더디 간다고 혼낼 사람 없으니 오늘도 천천히 여유롭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얼굴엔 미소, 가슴엔 사랑, 마음엔 여유로 즐거운 날이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 흥 만 (1회)
동기회장



마음이야 아직 피끓는 청춘이지만, 우리가 졸업한 지도 60주년을 넘기고 보니 동기를 머리에는 백발이 피었고 얼굴에는 인생의 훈장처럼 주름의 골이 깊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우정이요, 같이 고생했던 기억들이겠지요. 문득 그 시절로 기억의 창을 열어봅니다.

우리 중앙대 약대가 문을 연 것이 1953년, 피난지 부산 송도와 이리(익산)를 비롯하여 서울의 세 곳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전쟁의 와중에 모든 여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서울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이리로 가서 수강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리에서 6개월간 수업을 받다가 상경하여 본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본교로 통합하여 강

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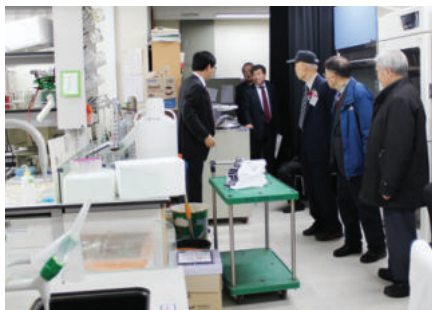
그러던 중에 4층 건물의 파이퍼홀이 준공되어 명실공히 약학대학의 터전이 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듣다가 졸업을 했지요. 실습은 1관 건너편 건물 야외에서 시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재학당시 우리 학교가 주축이 되어 각 약대 대학 배구대회를 주관하기도 했고, 4학년 때는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부산 동래와 범어사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기억도 새롭습니다.

1957년 졸업할 당시에는 4개 대학이 1관 앞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거행했는데, 이때 식장에는故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축사를 해 주셨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로서는 제3회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약사자격증을 획득한 후 약사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1회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1회 졸업 60주년 기념 연구실 방문



1회 졸업식 이승만 대통령 축사



1회 졸업사진





제1회 모교의 날 1971년



1회 졸업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우리 1회는 80여명이 졸업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유명을 달리한 동기가 절반을 넘어 47명에 이르니 세월의 덧없음과 함께 인생무상의 감회에 젖지 않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서너명을 제외하고 생존한 동기는 국내에 30여명, 미국과 캐나다에 5명 등으로 기회 달을 때마다 서로 안부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득불 요양원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동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역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며 약국을 경영하는 동기도 3명(서울 1명, 설악동 1명, 전주 1명)이나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1회를 대표하는 소모임으로 초토회(初土會)가 있는데, 지금까지 매달 첫째 토요일이면 동기들 7-8명이 중국 요리집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총회는 12월 중에 개최합니다.

경조사도 잘 완비되어 1회 동기 중 직계에 한하여 유고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이래 17년째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번도 월 회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 될 수 있겠는데, 총회 때 받은 회비를 기본으로 기회 달을 때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찬조해 주는 동기들에 더해 주축이 되는 소모임인 초토회에서 협조해 주어서 동기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마운 일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기도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동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니만큼 우리 동문들 모두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노후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기회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동기간 협조가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다른 동문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마련이지요. 특히 원로 선배들에 대한 동문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남은 희망사항은 모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후배들이 거듭 노력하고 발전하여 비단 약사사회의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트 우리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탬 테니 후배들이 힘내서 큰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1회 동기들의 선한 눈망울을 떠올리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모교에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바입니다.

기록 : 손 의 동 (22회)

약물학실은 성실·인내·창의력을 통한 난학배락(難學倍樂)의 비전정신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산한 교실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약물학실(요산회)역사 발자국에 대한 것을 집필부탁을 받아 대신 소개를 하게 되어 반원출신으로서 영광입니다 (이하 존칭생략).



약물학실 요산회를 소개드립니다

-참고 해서 나간 배움은 즐거움 또한 크리라-

요산회의 변천 | 약물실험실의 역사는 許仁壽교수(4회, 아호 章山)가 1963년 조교로 임명되고 1966년 약대교수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그 당시 는 약대사용공간이 파이퍼홀 오른쪽과 영신관 1층 강의실을 사용하여 손동헌교수 (1회)와 허인회교수가 학부실험반인 정성·약물실험반 2개의 실험실이 공동으로 운영되었고 손동헌교수가 환경위생과목을 맡아서 환경·약리반으로 개칭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약물학전공교실로의 탄생은 1989년도에 약대에서 전공교실제 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손의동 임명되어 2명의 교수로 약물학전공교 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2년 디비전제의 도입으로 병태생리전공과 같이 약 리·병태생리학부로 운영되었고 허인회교수가 정년을 하였다. 손의동교수가 학장 재직 시에 두산그룹에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여 2008년 6월 10일에 새롭게 시작하였고 약대의 공간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9월 18일에는 약학대학·R & D 센터 (102관)를 착공하였다. 2009년에는 약물학전공교수로 김현정교수가 임명되었다. 현재 약대는 1인 독자적인 연구실체제로 운영되어 손





의동교수 연구실은 신호전달 약리활성연구실(Signaling and Pharmacological Activity Research Lab)이다. 박사후과정생 1명, 석·박사 통합과정생 6명, 석사과정생 9명이 있다. 대학원생 전공중심의 재학·졸업생 모임인 요산회(樂山會, 산을 즐기는 모임)가 허인회교수 재직시 결성하여 교실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왔다. 현재까지 학위를 받은 원생은 허인회교수 지도아래는 석사 87명, 박사 25명 손의동 교수는 석사 103명(의식대 포함), 박사 23명이 배출되었다. 약대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트남, 미얀마, 네팔 국적의 학위생을 배출하여 국제적인 연구실로 나아가고 있다.

출신조교는 1980년에 김동섭(24회), 1983년에 조용백(26회) 등 총 46명이 거쳐갔다. 현재는 이현석 원생이 조교를 맡고 있다. 학부실험실은 허인회교수 조교시절 1964년(약대학보 8호)부터 매년 여름방학 때 실험을 진행하여 정년시까지 31편의 실험반의 업적을 내었다. 2016년에도 “Humulus japonicus extract(울초 추출물)의 진통효과”에 대하여 홍효빈 반장외 26명(지도교수 손의동) 실험을 진행하여 약대학보 59호에 게재되었다. 이렇게 학부생 실험이 대학원생과 졸업생과 사회진출로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MT, 신입생 환영회, 졸업생환송회 봉사활동 등 반회에 지원하고 있다.

요산회의 활동상황 | 실험실출신으로는 너무 광범위하여 대학원의 요산회중심으로 약국경영을 제외하고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동문회 활동으로 홍종오(약대동문회회장, 21회), 김수배(약대동문회부회장, 21회), 강희윤(전약대여동문회장, 22회), 김광식(약대동문회사무총장, 29회) 등이다. 교육계 봉사한 교수는 염윤기(전순천향의대 12회), 안형수(동덕여대 19회), 권광일(충남대 19회), 김형춘(강원대 20회), 손의동(중대 22회), 서동철(중대 23회), 나현오(가대 29회), 송현주(중앙대 이대), 김진학(보건사회교육개발원 가대), 김동석(중앙의대 36회), 민영실(중원대 36회), 정지훈(중앙의대 37회), 김학림(단국의대 37회), 방준석(숙명여대 37회), 서원희(중대 38회), 제현동(대가대 38회), 조재형(미일리노이대 38회), 류정수(미미시시피주립대, 39회)이다.

공직계는 식약처 경력으로는 박전희(21회), 김동섭(24회), 최기환(30회), 강석연(33회), 손수정(32회), 서수경(32회), 오호정(박91 덕성여대), 최희정(동덕여대), 양성준(39회), 이영주(46회)이며, 심사평가원은 서정숙(감사, 이대), 윤형중(32회), 이준우(과장, 49회)이다.

제약관련계 활동은 이상준(노바렉스사장 21회), 김중효(일동생활건강 사장 21회), 고부환(전삼일제약사장 22회), 이영욱(차바이오텍 대표 22회), 조용백(프라임제약 연구소장 26회), 김현식(전일성신 28회), 천세영(안국약품 전무, 28회), 이병호(화학연구원 29회), 박양혜(SK케미칼 38회), 박성욱(전한국화장



품 40회), 이태상(안센이사 40회), 성지현(동아ST 44회), 이두원(한국MSD 부소장, 45회), 이명재(일동제약 50회), 이세은(서울CRO 52회), 홍승태(입생로랑코리아 차장, 51회), 장현순(대웅제약 팀장, 53회), 주민재(대웅제약 대리, 54회) 등이다. 2017년에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회원에게 보내고 있다. 허인회교수는 교실의 선구자격이시다. 2016년에 80순을 맞아 축하연을 열고 노고와 업적을 기념하였다. 허인회교수는 학장을 두번 역임하였고 학생처장(1987~1989) 및 의약식품대학원장(1996~1998)을 거쳤고 호주 Sydney대학에서 연구연수시 중국 당송시대의 시선집에 관심을 가졌으며 정년 후에도 시선집을 12차례(12시선집모음: 2002년부터 2016년) 발간하여 저술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다. 손의동교수는 대를 이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학장, BK 연구단장, 대한약리학회장과 대한약학회장 겸 FIP서울총회 준비대회장을 역임하였다. 1997년 부임하여 20년 지난 현재까지 학부생에게는 성적우수자에게 매년 시상을 실시하여 90명(1호 2003년 곽신희~90호 2017년 허재원)에게 수여되었고 대학원생에게도 연구우수자 36명(1호 2000년 신창열~36호 2016년 이성희)에게도 수여되었다. 실험반 출신으로 부산대 조교생활, 경북의대강사, 미국 브라운 의대 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일하고 귀국하여 영남의대에서 봉직 후 중대에서 줄곧 생활했다. 1974년 입학시절부터 허인회교수를 보필하여 동고동락했다.

감사의 말씀 | 요산회는 합심하여 약대발전을 위해 혼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교실을 거쳐간 조교, 실험반장 및 반원 모두에게 감사히 생각한다. 요산회를 이끄신 초대 이상준회장을 비롯하여 김동섭, 조용백, 김현식, 김중효, 서정숙 전임회장께 경의를 표하며 현재 요산회를 이끌고 있는 천세영회장과 민영실총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시한다. 현재 학부 실험반을 이끄는 홍효빈과 박한진반장(63회)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동문회발전에도 열정적으로 요산회원이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할 것을 약속한다.

마무리하면서 - 배움을 즐거움으로 | 허인회교수께서 요산회에서 산을 오르서 좋아하신 문구가 있다. “중략~ 서로 만나 한번 취하니 모두 비로소 고향사람이 된 것 같구나” (허목의 시. 相逢偶一醉 皆是故鄉人 상봉우일취 개시고향인). 동문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해 드리고자 한다. 비전을 되새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는 가운데 화합이 이루어지며, 참고 헤쳐 나간 배움은 즐거움이 배로 크리라. (忍中有和 難學倍樂 인중유화 난학배락) 감사합니다.

약대 파이팅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

- 다낭에 울지 말고 롬복에 속지마라!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지난해 7월 초순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집사람이 귀국을 앞두고 며칠간 말년 휴가를 받았다. 그 얼마 전 사내 행사에서 행운권 추첨으로 열떨결에 동남아 2인 여행권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언제 쓰겠어?’라며 책상서랍 어디엔가 던져두었던 터에 생각지도 않던 둘만의 여행을 다녀올 계기가 되었다. 다들 그렇겠지만 집안 사정상 신혼여행 이후 둘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을 리 없다. 오로지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데 방점을 찍고는 ‘뭐든 안할 수 있는 자유’를 유일무이한 덕목으로 삼기로 했다. 그런 상황에서 친지나 가이드의 친절하고 효율성 높은 지도하에 찬란한 문화유산이나 빼어난 풍광을 보려는 계획을 시도할 일은 꿈에도 없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눈만 부딪히면 서로 목소리 높여 가며 먹고 자고 하는데 목숨 걸다 보니 제대로 된 여행기는 애시당초 기대난이라 오가는 길에 흘렸던 에피소드나 몇 가지 줍기로 할 수밖에! 사족 하나 덧붙이자면 하필이면 출발시점이 회사 신입사원 교육을 앞둔 터였다. 평소 같으면 우리 팔자에 무슨 여행이냐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갱년기 호르몬 변화의 위세를 등에 업은 집사람이 이번에는 전혀 양보할 뜻이 없었다. 가라사대 “회사 그만두고 와!”

애간장 다 타버린 출애굽기 (출국기)

장맛비가 제대로 내린다. 억지로 시간 조절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정신없이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 귀가, 별로 꾸릴 것도 없이 옷가지 몇 개 넣은 여행가방을 챙겨 우산 딱하니 받쳐 쓰고 나온다(고대하던 여행의 출발점이 예사롭지 않구나!).

보통 시간당 두 편 있는 공항버스가 이 시간대만 3편, 공항 일찍 가서 뭐 할 일 있겠냐고 머리 쓴다고 중간시간대를 택한 것이 ‘신의 악수’가 될 줄이야. 하릴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꼬박 40분을 서 있었다. 3시 37분 버스가 57분이나 되어서야 도착했다.

손님이 없어 한 타임 빼먹은 게 아니냐는 오해받기 십상인 다음 배차시간에 정확히 맞춰 공항버스가 왔으니 점잖음을 가장했지만 어쩔 수없이 운전기사에게 짜증을 낼만도 했겠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실인즉 징계도 교통체증 때문이란단다. 타는 승객마다 비슷한 심정으로 늦게 온 타박을 하는

데 기사님 답변은 금요일 오후면 이럴 시간대가 아닌데 자기로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나름 단순명쾌한 것이었다. 슬슬 '이거 뭐야' 하는 느낌이 도래한다.

그래도 가는 길이라 비교적 순조롭게 운행되나 했더니 그도 잠시, 수서쪽 간선도로 초입부터 여지없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올림픽도로 타는 데까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어찌어찌 한남대교를 거쳐 한강대교 근처까지 갔는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는 평상시 심리적 저항성인 여의도를 지났는데도 역시 지체가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알고 보니 결국은 빗길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속 타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7시 비행기라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어 한참 근무 중인 아들에게 어떻게든 수습책을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에서는 6시 10분이 테드라인이라 그 시간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였다. 타들어가는 속은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하염없이 두드리는데도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하릴없이 흘러 초침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 닿는데, 답답한 마음에 운전기사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한다는 사정을 읊소해 보지만 어쩔 것이냐 이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것을!

아주 늦어버리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쉬울듯한데 참으로 징그럽게도 겨우 1분, 2분 차이가 날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고상한 말로 미치고 팔짝 뿔 노릇이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드디어 버스가 공항출국장 앞에 도착했다. 시간은 6시 1분, 기사가 할인티켓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염도 없이 여행가방을 들고 냅다 뛰었다. 하필이면 공항버스가 하차지점인 대한항공 측에서 보면 아시아나는 가장 반대편에 위치하는 고로 이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지뢰가 되기에 충분했다. 평상시 같으면 휘파람 불며 어

기적어기적 걸었던 그저 그런 거리가 왜 이다지도 길게 느껴지던가. 어쨌든 무협지에 나오는 소림비급의 경공신법을 전개하여 3분 만에 전용카운터에 도착하니 숨은 턱에 차고 입은 말라 쓴맛만 가득하다.

그렇지만 정작 카운터 직원은 여유가 넘쳐흐렸다. 대개는 여직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창구에서 "시간 늦어 도와줄 길이 없다"라는 말을 해도 놀라지 않을 만큼 적당히 우락부락한 모습의 남자직원이 아직 시간 충분하다며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수속하라고 진정을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혹시라도 수속이 늦어지면 자기가 직접 에스코트라도 해서 안내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재차 심호흡을 시켰다. 아이고야, 평소 국내에서 쓸 일 없는 고급영어가 절로 튀어나온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월매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유)!

좌석배정을 무사히 마치자 비로소 끝없이 이어지던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걱정하던 식구들에게 문자로 인간 승리의 뜨거운 소식을 타전했다.

나중에 보니 다낭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람도 비상이 걸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 돈 내고 폼 잡으며 가는 여행이 아니라 집사람 출장길에 아끼고 아껴두었던 마일리지를 이용한 티켓이라 일단 일정이 틀어지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여행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하늘이 도와주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심정이 1밀리의 오차도 없이 가슴에 쏙쏙 와 닿았다.

눈물의 상봉

어찌되었건 시간은 흘러 현지시간 9시45분에 다낭공항에 도착, 외국 자주 나갈 일 없는 일천한 경험상 특이하게 입국신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여권만 가지고 이민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시골 정류장 분위기의 입국장에 들어서자 갑자기 싸구려 땀 냄새가 전신을 엄습하며 도착의 환영 세리머니를 대신했다. 환영객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바로 코앞에서 짐을 찾고 나가니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집사람이



그야말로 잃어버렸던 자식 찾은 듯 반갑게 맞아주는데, 아마도 결혼 후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군냄새 물씬 풍기는 3류 드라마 같은 여정 끝에 호텔에서 제공한 리무진 편으로 다낭 바닷가에 위치한 Pullman Resort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 새도 없이 늦은 시간 유일하게 불빛을 밝혀놓은 로비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살얼음 뚱뚱 따온 마가리따 몇 잔으로 길고긴 첫날 모험을 마감했다.

컨티넨탈 브랙퍼스트의 힘

호텔의 조식 뷔페는 늘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그만하면 감지덕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달라지는 게 없는 식상함이 교차한다. 뭐 굳이 찾아서 먹자면 그런대로 격식 갖춰서 먹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누구인가? 한국사람이면 당연히 계란후라이 두 개에 베이컨이 있는 ‘컨티넨탈 브랙퍼스트’를 먹으면 없던 기운도 솟아나는 것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지난밤 연거푸 들이킨 칵테일 해장하려고 쌀국수를 시켜보지만 역시나 특이한 향을 피해가기 어려워 칠리소스 쳐서 국물만 몇 모금 떠먹고 만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카푸치노 한잔 폼나게 시켜놓고 흑설탕 1봉지에 집사람이 남긴 백설탕 1/2봉지 넣고 훌훌 들이마시니 만사 오케이, 걱정이 없다.

여행사에서 마련해준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절에 우리 돈 8만원 정도라니 이곳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택시기사로서는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목적지로 이동해서 내려주고는 어디에선가 대기하고 있다가 떠날

때쯤 되면 전화벨이 끝나기도 전에 번개같이 알아채고 마중을 나온다.

먼저 숙소 가까운 곳에 있는 대리석 조각 거리에 들렀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참’ 왕국의 전통이 계승되어 지역 특산물 대리석으로 작은 장신구부터 초대형 불상까지 없는 게 없다고 했다. 과연 평소에 별로 결눈질 잘 하지 않는 내 눈에도 나중에 단독주택에 살게 된다면 집 뜰에 놓고 싶은 마음이 가는 작품도 없지 않았지만, 글썽 어느 세월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어 근처에 있는 마블마운틴(Ngu Hanh Son)이라는 대리석 동굴산으로 갔다. 다섯 개의 작은 산으로 이루어져 오행산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각각 목화토금수의 산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현재는 물의 산(Thuy Son)만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아담한 크기의 동산같은 산은 그러나 산 전체가 거의 인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외관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천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었다. 곳곳에 불상이 배치되어 오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에도 관광지로 삼을 만 했다.

나선 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마이손(My Son)까지 가보기로 했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참파족이 조성한 힌두사원 유적터인 마이손은 벽돌로 쌓은 건축물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비바람에 풍화된 흔적이 역력하여 고작 뼈대 정도만 남아있었다. 마침 전문가이드를 대동한 여행팀과 조우하여 몇 마디 귀동냥을 했다. 원형 그대로를 복제한 벽돌로 끊임없이 보수를 하고는 있으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폐허를 지탱하던 옛것은 그대로

이나 새로 제작한 벽돌은 허물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온갖 공학기법 동원하여 원래의 벽돌 조성을 분석해 보아도 정확한 황금비율을 알아내지 못했다나 어쨌다나.

안방해변(AnBang Beach)의 위로

이어서 오후에는 가이드에게 소개받은 호이안(Hoi An)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그럭저럭 점심때가 되어 우선 식당을 먼저 들르기로 하고 지척에 있는 안방해변을 찾았다. 소울키친이라는 식당을 추천받고 찾아갔으나 역시 이름값 하느라 그런지 손님이 와도 별 반응이 없었다. 평소의 고약한 성정대로 어김없이 그곳을 그냥 지나쳐서는 비교적 바다 조망이 좋아 보이는 근처의 다른 식당으로 들어갔다.

우리 식으로 본다면 원두막 같은 형태의 구획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코앞에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자리에는 폭신하기 짝이 없는 대형 쿠션이 원하는 만큼 놓여 있었다.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바닷가답게 대충 옷통은 벗어제낀 관광객들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쿠션에 기대어 먹고 마시고 담소하는 폼이 마치 대마초 한두 대쯤은 피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여행이 주는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무장한 우리 역시 전혀 당황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시선만을 즐기기로 했다. 가리비구이와 사이공맥주에 눈이 휘둥그레진 터에 시푸드며 파스타며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 한다고 시킨 쌀국수까지 거칠 것이 없는 맛에 취해 바닷물에 뛰어들고야 말겠다는 결심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따갑고 습한 날씨임에 틀림없었지만 바닷가 특유의 바람이 주는 쾌감은 결코 많이 마시지 않은 알코올 탓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묘한 안도감과 해방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드디어는 들어서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로 옆자리의 젊은 친구들과 유사한 포즈로 길게 누워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마치 도를 깨우친듯한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의 호이안 시내 민속마을 관광이 나쁘지 않았으나 안방해변의 여운이 워낙 강하게 남아서인지 대충대충

성의 없이 둘러보는 수준에 그쳤다. 하여 바닷가와 다른 후덥지근한 날씨에 마냥 구시렁구시렁 거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악마의 유혹처럼 에어컨 냉기로 뽕뽕한 카페에서 마치 우리식의 봉다리 커피 세 개쯤 털고 설탕을 원하는 만큼 넣은듯한 진한 냉커피 한잔으로 모든 불편함을 용서하기로 했다.

식상하지만 오토바이 이야기 조금

제주도 가서 굴 이야기하면 촌놈이듯이 베트남 가서 오토바이 이야기 하면 웬지 식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관련 뉴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본 베트남 풍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눈앞에서 오토바이 천국을 실제로 본 느낌을 한마디 하지 않고 가는 것도 저절로 이상하다.

거두절미하고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았다. 혼자 타고 둘이도 타고 셋 넷 다섯 가족이 타기도 하고, 남녀노소 구분도 없었으며, 뭘 먹기도 하고, 핸드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연인끼리 밀착하여 꼭 붙여가기도 하고, 아빠가 아들에게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짐을 산터미처럼 싣고 가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기도 하고, 샌달을 신고 타거나 그냥 맨 발로 타기도 하고...

아마 백미는 다낭 시내에서 고등학생 임직한 여학생들이서 편대비행 하듯 나란히 속도를 맞춰가면서 뭘 이야기인가를 실 새 없이 나누며 주변의 풍경이야 어떻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다정하게 달려가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면 정자나무 아래 휴게소인양 수많은 오토바이가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는 한편에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앉아 쉬는 모습을 절대 모른척하며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크락손은 거의 휘파람이나 호각 수준이라고 봐야겠다.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대며 오토바이와 신경전을 벌이는데, 오토바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이다. 백미러도 없이 1차선과 2차선을 자유롭게 오가는 영혼들의 각축장이라고나 할까.

롬복에 속지 마라

몇 군데 남지 않은 천혜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 롬복(Lombok)의 실상은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찌면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으레 관광코스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3개 섬 일주는 가장 크다는 트라왕안 길리(Trawangan Gili-길리는 우리 말로 섬이라고 한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로 좁은 길은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았다. 자전거 타는 사람, 거대한 배낭을 짊어진 젊은 여행객들에 더해 호객꾼에다 관광용 마차까지 설 새 없이 크락손을 누르고 다녔다. 쓰레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땀 냄새에 말뚝 냄새가 진동하는 선착장 입구는 가히 아비규환 수준이었다.

그래도 관광지 바닷가 특유의 번잡함으로 들뜬 공기를 핑계로 어렵사리 한 식당으로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음식 맛이 나쁘지 않아 그런대로 기운을 차린 후 반라의 청춘들에 둘러싸인 바닷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모래사장만 기억하던 우리의 해운대나 경포대 바닷가 생각하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 전개되었다. 산호초며 돌맹이며 기타 등등의 딱딱한 물체들이 파도가 밀려오는 경계선을 어김없이 메우고 있어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혼비백산, 깜짝 놀라서 발을 거둬들이게 되는 형국이었다.

이는 여기뿐만 아니라 근처 어느 해변을 가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에메랄드빛 바다 어찌고 하더니 스킨스쿠버나 스노클링에는 천국일지 모르겠으나 수영하기에는 영 썸병인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끝없이 펼쳐진 선탠의자에 선그라스로 무장한 청춘들이 바다쪽을 향해 하염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하릴없이 찬 맥주만 축내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며 벗어놓은 낡은 팬티와 새로 산 반바지를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전세 보트에 몸을 실었다. 제기랄! 이래저래 롬복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 만무하다.

사람 사는 방식

임란(Imran)은 운 좋게 만난 착한 운전기사였다. 트라왕안에서 롬복으로 다시 배를 타고 나와 숙소로 귀환할 때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탔는데 그가 임란이었다. 요금에 대한 실랑이가 잠깐 있었고,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어 다음날 일정을 그의 권고대로 온전히 맡기게 된 것이다.

21살 딸은 시내 호텔에서 일하고 있고 17살인 아들은 아직 밥벌이를 하지 못해 걱정이라는데, 좀 친해지고 나서 들어보니 통상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하고 그것도 쉬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가난하여 설 새 없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여기나 저기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를 리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여기는 무슬림들이 90% 이상이고 당연히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이며, 여자는 나이 15-6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대개 경제적인 이유로 조혼이 성행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인습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였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둘째 셋째 그 이상의 부인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가난한' 임란의 설명이었다.

그의 추천으로 번잡함과 거리가 멀다는 쿠타해변(Kuta Beach)으로 가는 도중 잠시 들렀던 사삭족(Sasak) 전통부락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현재 150여 가구에 약 700명이 살고 있는데 모두가 한 가족(one family)이라는 것이다.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도 오로지 자기들만의 고유어를 사용하며 직접 목화솜을 털어 천연재료로 염색하여 우리식의 팔찌나 식탁보, 옷감 같은 것을 직조해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좀체 이곳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했다. 결혼도 거의 사촌끼리 근친혼으로 이루어지며 웬만해선 부락을 탈출할 길이 없는 곤궁한 삶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였다.

그중 몇몇 젊은이들이 한두 마디 영어를 배워 관광객들 상대로 마을을 소개해 주며 수고료를 받는데, 이런 정도로도 말하자면 일종의 특권층 행세를 하고 있었다.

상대적인 여유와 소산인가, 수고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가이드에게 기쁜 마음으로 도네이션 하라'는 말이 귓전을 울렸다.

아하 풀빌라(Pool Villa)!

룸복에서는 집사람이 인터넷 뒤져 자신 있게 정했다는 소위 풀빌라에서 묵기로 했다. 덴파사 공항에서 도심인 쟁기(Senggigi)를 지나 바닷가에 위치한 수다말라(Sudamala) 리조트란 곳으로, 인도네시아 전통미를 살린 건물과 바닷가에 인접하여 파도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원형 풀장과 야외 레스토랑이 적절하게 배치된 쾌적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밤늦게 착륙하여 군인들이 판치는 시골간이역 같은 공항에서의 불온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은 상태에서 자정 넘어 도착한 리조트 로비에서 수속하느라 한참 동안 실랑이 하느라 미처 그 진가를 알아채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안내받은 숙소는 외관은 멀쩡해 보였으나 뭔가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은 묘한 열대과일 같은 냄새가 첫인상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하나 기겁할 풍경은 화장실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침실과 벽 하나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덩그러니 변기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바로 샤워장이 있다. 일보고 그대로 씻는 것이 관례라고 하긴 하더라도 영 익숙지 않은 풍경임에 틀림없었다. 뭐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시간에 와인 한 병 시켜 맥막이하듯 들이키고는 잠을 청했으나 결국 새벽녘에 매니저에게 불평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바닷가 야외 레스토랑에서의 조식으로 마음이 조금 풀린 우리에게 리조트 측에서 정중한 사과를 했다. 오늘은 관광 마치고 오면 풀빌라로 옮겨줄 것이며, 집사람의 요구가 더해져 3일째는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객실을 제공하기로 흔쾌히 동의해 준 것이다. 원래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강국에서 악플 깨나 달아본 듯한 한국인의 명성을 배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풀장 옆 레스토랑에서 마신 마가리따 만큼이나 상큼하게 기분전환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날 저녁 이곳 여행의 정석인 3개섬 일주를 나갔다가 과히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트라왕안만 둘러보고 바닷물의 녹녹함에 젖어 터덜터덜 리조트로 돌아왔더니 약속대로 이미 여행가방이 풀빌라로 옮겨져 있었다.

피곤한 마음에 어제 냄새나는 객실보다야 낫겠지 하고 심드렁하게 따라간 풀빌라는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별천지였다. 리조트 내에서도 별도의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 그야말로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그에 더해 무엇보다 별도의 풀장이 따로 있어 'Full Villa'가 아니라 'Pool Villa'라고 한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겠는가?

편히 잘 쉬시라는 인사와 함께 종업원이 문을 닫아주고 나가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에 걸친 모든 옷가지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풀장으로 뛰어 들었다. '본능적으로' 라는 말을 내 짧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써봤을까? 그래서 또 한 병의 와인이 숙소로 배달되어 왔다.

장엄한 일몰과 마가리따

다음날은 임란의 추천대로 번잡한 3개 섬 투어를 포기하고 좀 더 한적함을 보장한다는 쿠타해변으로 갔다. 말 그대로 화보에서 본 듯한 에메랄드빛 바닷가에 수영복 차림의 관광객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어제의 번잡함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고유의 삶을 살아가던 토착민들이 관광객들이 밀려오며 빠른 시간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임란의 설명이었다. 말인즉슨 따로 자릿세 받는 장사치는 없으나 옷가지며 카메라며 핸드폰 등등을 보관할 곳이 없어 그냥 모래사장에 두고 수영이라도 하고 나올라치면 누군

가의 손을 탄다는 것이다.

이러니 잔뜩 불안에 찬 눈초리로 사방에서 달려드는 눈만 반짝반짝하는 아이들과 머리에 뒬가를 이고 다니며 끊임없이 사주기를 강요하는 아낙네들 사이에서 조바심이 극에 달했다. 집사람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내가 망을 보고, 내가 파도에 밧이라도 담글라치면 집사람이 나와서 망을 봐야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수욕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짐을 싸기로 했다. 근처 식당에서 모래 잔뜩 묻은 수영복 차림 그대로 찬 맥주와 파스타로 점심을 때웠는데, 그 큰 식당에서 맥주가 떨어졌다며 추가주문을 받지 않는 통에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다.

아무래도 임란이 미안한지 정말 아무나 못가는 조용한 해변이 있으니 속는 셈 치고 한군데만 더 가자는 제안을 했다. 별로 할 일도 없던 터에 고개를 넘고 넘어 찾아간 곳이 아마도 마운비치(Mawun Beach)가 아니었나 싶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똑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담한 해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텐의자에 누워만 있어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에 우리가 다시 올 일이 있겠느냐는 여행 말미의 쓸쓸함과 초조함을 쓰디쓴 맥주로 달래기에 제격이었다. 어떻게든 우리 기분을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선량한 임란 덕분에 최고의 경험을 한 셈이다.

한껏 업그레이드된 기분으로 리조트로 돌아왔더니 역시 약속대로 이번에는 해변가 파도소리 들리는 2층의 객실로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3일 투숙하는 동안 매일 다른 형태의 객실에서 색다른 기분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저녁은 전날 밤 둘러보았던 생기기 시내의 근사한 스테이크와 지역 특유의 흥겨움이 넘쳐나는 바가 그림기도 했지만, 일부러라도 보러 온다는 일몰을 즐기기 위해 야외 레스토랑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새 정이든 식당 종업원은 우리에게 귓속말로 “너네 한국에서는 매일 와인을 그것도 병째로 마시냐?”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온다는 말에 가장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바닷가 끝자리 좌석을 자기 곳발로 잡아



두겠다는 친절을 베풀었다.

집사람과 나란히 누워 매미 그물망 같은 팬티로 갈아입을 때만 해도 집사람 몰래 약간의 야릇한 상상을 하며 입술을 축였으나 실상은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의 마사지를 받고 나오자 일몰 보기에 적당한 시간이 되었다.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간직한 각양각색의 관광객들이 조용히, 한편에서는 떠들썩하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맛있는 음식과 술과 밴드의 연주에 취해가고 있었다.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마가리파 대신 헤밍웨이가 쿠바어느 카페에선가 늘상 마셨다든가 하는 특별히 주문하여 박하잎을 제대로 넣은 모히토를 청해 마시고 또 마셨다.

Selamat tinggal(잘 있어)!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났다. 무계획과 아무 것도 안 할 자유와 마가리파와 와인어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으며, 정말이지 어렵사리 주어진 기회를 만끽하며 집사람에게 평생 진 빛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갚았다는 안도감을 제일 큰 성과로 남겼다.

새벽잠 설치고 나와 공항까지 우정 태워준 임란에게 쓰고 남은 여행경비를 모두 털어주고 진한 포용으로 다음 만날 기회를 약속했다. 셀라마트 텅갈!

주 훈 정 (39회)



고 김성진(39회) 추모사업회, 병태생리학실에 역상현미경 기증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1991년 입학한 후 병태생리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병태생리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였지만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91학번 김성진 동문을 기억하는 실험반원들이 추모사업회를 구성하여 모금을 하고 서거 20주기에 맞추어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병태생리학실에 최신 역상현미경(Invert Microscope)을 기증하였습니다.

고 김성진 동문은 제약학과에 입학하여 병태생리학 교실의 반원으로 들어가서 실험실 반원들인 선후배 동기들과 끈끈하고 깊은 우정을 쌓았고 또한 성실히 실험실 생활을 하며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약사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졸업 후에는 모교의 병태생리학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김창중 병태생리학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학자의 꿈을 키워나갔고, 또한 조교로서 활동하면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병이 다가와서 수개월 투병 후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는데, 함께 하면서 살아갈 날들이 아직 너무나 많았는데, 그는 그렇게 꽃다운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고 김성진 동문을 기억하는 실험반원들이 오랜 기간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김수규(38회) 선배가 추모모임을 갖자고 제안하고 뜻깊은 추모행사를 실천해 보자는 제안에 의해 추모사업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모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을 위해 개인 1구좌(10만원) 이상 1년간 모금해 20주기에 맞춰 의미있는 모금액이 모이면 연구실 교수님과 상의하여 의미있게 집행하고, 그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 김성진 동문(1971년 6월29일생)
1991년 모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입학,
1997년 2월 병태생리학 전공으로
약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그해 5월3일 안타깝게 별세하였음



고 김성진 동문 20주기 추모사업회가 모교 병태생리학 교실에 역상현미경을 기증하였다.

91학번 동기회 회장 김상래와 총무 이은경이 중심이 되어 각 학번 동기들과 연락하며 모금운동을 진행하였고, 선·후배와 동기 36명이 참여하여 7백여만 원의 금액을 모금하였고 이지윤 병태생리학실 교수님과 상의하여 2017년 5월 3일에 “91 김성진을 추억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병태생리학실 동문들”이란 이름으로 연구실에 필요한 역상현미경을 기증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병태생리학교실은 김창종 교수님이 병태생리학 교육을 시작하면서 탄생되어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12-15명 정도의 학부생이 입반하고 졸업후 병태생리학동문회를 구성하였고, 병태생리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졸업한 동문은 병태생리원우회 및 병태생리박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98학번 이지윤 박사가 병태생리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윗줄 우로부터 두번째 고 김성진 동문. 졸업하는 병태생리반 2년 선배들의 졸업 축하 사진(1993년2월)



윗줄 우로부터 두번째 고 김성진 동문. 병태생리반 새터 MT장에서 김창종 교수님(아랫줄)과 함께(1994년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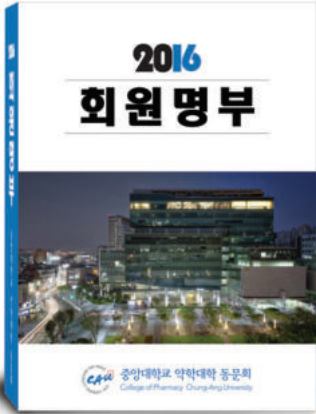


좌로부터 세번째 고 김성진 동문. 대성리 MT 장에서(1996년10월)



아랫줄 좌측 두 번째 고 김성진 동문. 셋터 MT 마친후 출발시(1995년가을)

2016 회원명부를 판매합니다!



동문회에서는 최근 2016년판 동문회 회원명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7천여 동문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선배와 후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우리 동문들 사이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동문들, 그리고 광고형태로 협찬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배부가 되었으며, 빠듯한 제작비와 발송비 등을 감안하여 남은 100여권을 동문회기금 적립을 위해 판매를 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당 ₩30,000)

회원명부가 필요한 동문들께서는 동문회 사무실(02-565-17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장단회비 내역

2017.6.1~8.15
600,000원

21회	홍종오	21회	김중효	21회	백운경	21회	한상운	22회	최광훈	24회	함삼균
26회	김정수A	26회	윤영한	27회	곽나윤	28회	이해룡	30회	김광식		

이사회비 내역

150,000원

8회	조익환	12회	김 구	15회	조찬휘	21회	한찬수	26회	하재일	31회	김성민
8회	배영애	12회	우준하	16회	최창원	21회	안병현	26회	진희억	32회	안광열
9회	이근배	12회	염윤기	17회	김성지	21회	고영근	27회	오흥설	34회	김보원
11회	김미자	13회	임유재	17회	장재인	22회	이현희	30회	김해승	35회	서유정
11회	김창중	13회	문재빈	17회	신상직	22회	전철호	30회	최병태	38회	이재훈
12회	이성우	13회	최창엽	18회	강응모	23회	홍순옥	30회	신일균	38회	최은주
12회	심재웅	14회	구종모	20회	이상일	24회	임무호	31회	오대근	46회	원현식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957-211514 예금주 **홍종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47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안내

골프대회

- 일시 : 9월 17일(일) 첫 티업 오후 12시30분 (11시 30분부터 식사)
- 장소 : 히든밸리CC (충북 진천군 백곡면)
- 비용 : 22만원 (포함 : 중·석식, 그린피, 카트비, 멀리건티켓, 음료, 간식) 별도 현장 결제 : 캐디피, 그늘집)
- 시상 : 개인, 단체(기수, 단체별)시상 및 캐디백 퍼터 등 행운권 추첨

체육대회

- 일시 : 10월 15일(셋째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
- 종목 : 대항전-족구, 바둑, 제기차기, 윷놀이, 미니골프, 맥주 빨리먹기 등 청백전-단체줄다리기, 계주

※ 자세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동문회 사무실(02-565-1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기작!

기대 동부회
시작입니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2017-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보건사회임상약학	배진형
2	본동문회	2,000,000	제약과학	유승엽
3	본동문회	2,000,000	제약학	전소영
4	본동문회	1,665,250	제약학	류미희
5	본동문회	1,665,250	제약학	오민아
6	본동문회	1,665,250	제약학	이영담
7	본동문회	1,665,250	제약학	홍효빈
8	본동문회	750,000	약학	김수빈
9	본동문회	750,000	제약학	김예슬
10	본동문회	750,000	제약학	정수림
11	본동문회(김명섭장학금)	2,089,000	제약학	이희주
12	본동문회(손동헌장학금)	1,000,000	제약학	최주헌
13	은평동문회	1,000,000	약학	서유미
14	휴텍스제약	2,000,000	약학	김예희
15	여동문회	1,000,000	약학	김솔이
16	안양동문회	1,000,000	제약학	구형모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7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강진국
18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김혜란
19	28회동기회	639,000	제약학	김은경
20	나사모동문회	1,500,000	제약학	이여름
21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약학	박희준
22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이주은
23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유나
24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고석훈
25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박서영
26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27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인정렬
28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대용
29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유나
30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약학	김소현
31	천안동문회	1,000,000	약학	강영우
합 계		37,639,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찾아어며 심신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지혜롭게 지난 여름을 잘 극복 하시었겠죠.
동문 여러분!
21대 동문회를 이끌어갈 21회 홍중오 회장이 탄생하셨습니다.
절말 잘 부탁드립니다.
선후배 동문을 하나로 어우르는,
하루하루를 즐기롭고 기쁨이 넘치는 나날 되기를 진심으로 말입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2017년 7월 무덥던 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탄중아루 리조트.
바닷가에 위치한 '코코조'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니킵인지 부르카
인지 눈만 내어 놓은 의상을 착용한 여성이 키가 경충하게 큰 백인 청년과
바로 뒷 테이블에 앉아 간간이 부는 바람에 맞춰 베일을 슬쩍 들어올리며
샐러드를 먹는 모습을 보다가 말다가 하며 사람사는게 다 그렇지 뭐 어찌
고 하는 생각을 하며 차가운 맥주로 목울대를 달랬다.

김광식(30회)
편집위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동문회에 나
오면서 여러 선배님들을 뵈었습니다. 누구나 하실 것 없이 우리 약대가 더
욱 발전하기를 바라셨고 우리 출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선배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문회의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다보습
니다.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인생을 꾸리는 여러 직장의 후배들이 있습
니다. 우리 동문회의 앞날이 창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후배들이
동문회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지,
문화가 다른지 잘 파악하여 나오실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 선배님들을 보며 느꼈던 것들을 후배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온누리약국과 함께 이루는 약국 성공의 오픈 솔루션 3

오픈솔루션 1

24 시간 오픈

온누리약국과 함께라면 24시간이면 충분!

토요일 약국 영업이 끝나고 인테리어 시공 시작! 일요일 오후 시공완료!

토 PM 4시

기존약국 철거 및 인테리어 시공



일 AM 9시

시공 및 제품&시스템 세팅



월 AM 8시

약국오픈



오픈솔루션 2

매력있는 약국진열

시공완료 후
바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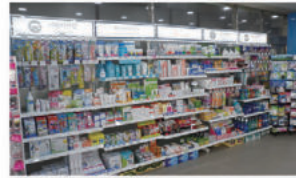
약사님이 눈 깜짝할 사이! 잘 팔리는 약국을 위한 매력 있는 약국 진열!

빅데이터에 의한 과학적인 제품 진열과 POP연출, 가격표, 점두매대 등 매장마케팅까지!

제품 진열



진열사진 | 컨수머헬스케어



볼진열대 등 집기류



오픈솔루션 3

지원 점장

약국 오픈하는 당일! 약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지원점장 투입! 지원점장은 무슨일을 하나요?

1. 온누리약국 시스템지원
- 처방조제프로그램, 주문판매 관리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2. 진열 관리 및 마케팅 지원
3. 약국CS 교육 및 지원



가맹문의 / 창업(개설) 설명회
080-552-2580

〈창업(개설) 설명회는 어디서?〉

일 시 매주 화요일 14시(방문 전 신청해주세요)

장 소 온누리H&C 본부(삼성동)

대 상 약국 변화에 고민하는 약사님 / 약국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약사님 / 레이아웃(인테리어)에 고민하는 약사님

온누리약국
창업(개설) 설명회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일동제약...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ILDONG 일동제약
SINCE 1941





28 가지 성분을
하루 한알

나인나인정

광고심의필 : 1350-2000

두수인산수소칼슘(KP) 421.54mg/칼슘으로서 124.175mg, 총 인으로서 96mg / 시아노코발라민1000배산(KP) 6mg(시아노코발라민으로서 6μg) / 염화크롬수화물(USP) 0.102mg(크롬으로서 20μg) / 오오드화칼륨(USP) 0.098mg(오오드로서 75μg) / 폴리비타민산류복합(타) 0.051mg(폴리비타민으로서 20μg) / 폴산(KP) 0.4mg / 퀘타닐아세테이트(타) 1.8mg(비타민A로서 900IU) / 피토나디온5%복합(규) 1.95mg(비타민K로서 97.5μg) / 리보플라빈(KP) 2.4mg / 베타카로틴20%과립(복합) 3.6mg(베타카로틴으로서 0.72mg) / 티아민질산염(KP) 2.75mg / 피리독신염산염(KP) 4.02mg / 비오틴(복합) 0.08mg(비오틴으로서 60μg) / 글루탐산(복합) 7.3mg(비타민D로서 750IU) / 황산철이구리수화물(USP) 1.76mg(구리로서 0.45mg) / 황산망간(USP) 7.69mg(망간으로서 2.5mg) / 만토텐산칼슘(KP) 8.813mg(만토텐산으로서 9mg, 칼슘으로서 0.825mg) / 산화아연(KP) 8.33mg(아연으로서 7.5mg) / 니코틴산아미드(KP) 27mg / 트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KP) 60mg(비타민E로서 60IU) / 셀레늄기루0.1% (KP) 23.5mg/셀레늄으로서 23.5μg) / 푸마르산칼슘(KP) 54.76mg(칼슘으로서 19mg) / 아스코르브산97%과립(복합) 61.85mg(비타민C로서 60mg) / 산화마그네슘(KP) 82.92mg(마그네슘으로서 50mg) / 황산칼륨(KP) 88.16mg(칼륨으로서 40mg) / 우르스테옥시칼슘(KP) 30mg / 글리시르피리다틴염(USP) 70mg / 오로트린수화물(KP) 70mg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